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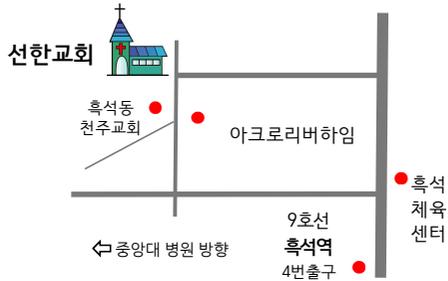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1부 주일 오전	9:30	오전 11:00	여호수아회 오후 2:00
2부 주일 오전	11:00	오전 11:00	요 셉 회 오후 2:00
3부(청년) 오후	1:00	오전 11:00	바 울 회 오후 2:00
주 일 오후	3:30	오전 11:00	루 디 아 회 오후 1:00
(5째주 셀가족모임)		오전 11:00	마 리 아 회 오후 2: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7:30	오전 11:00	드 보 라 회 오후 2:00
금 요 기도 회	금요일 저녁 8:30	오전 11:00	에 스 더 회 오후 2:0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오전 11:00	
셀 가족 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오전 11:00	

섬기는 분들

사역자	담임목사 임춘배 교육목사 정용준 협동목사 홍진표 교육전도사 윤영 협력전도사 오효남	국내선교사 협력교회	오인숙, 한배선 가슴뛰는교회(원종선 목사) 기쁨교회(유성은 목사) 주안예교회(이정필 목사) 주의뜰교회(김대열 목사)
은퇴장로	고상돈, 김대희 박희태, 유신웅 조윤익	해외협력선교사	김만조, 이금춘, 조나단
장로	편도선(집사장) 박영근, 윤호중 조계승, 이태수	관리장로	손석규 500/50 교회 (1호) 필리핀 Good Church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752(호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36, 5517(중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시아용(동작 01, 10, 21)

06910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흑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표 어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고후 9:6)
whoever sows generously will also reap generously

실천사항 물질 심기 기도 심기 복음 심기

삶의 방식 (빌 4:1-7)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벧전 5:6)



담임목사 임춘배

주일 예배	1부 오전 9:30	2부 오전 11:00	인도: 임춘배 목사
	3부 오후 1:00		인도: 정용준 목사

1, 2부		3부(청년)
기 원	인도자	
찬 양 과 경 배	32장 (통일찬송가 48장)	
교 독 문	교독문 33번 (시편 72편)	
찬 양 과 경 배	180장 (통일찬송가 168장)	
기 도	편도선 장로	
찬 양	드림성가대	
성 경 봉 독	베드로전서 5장 1~6절	삼상 21:1~6
설 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 (임춘배 목사)	우연인듯 아닌듯 하나님의 도우심 (정용준 목사)
헌 금	헌금송 : 서창덕 집사 가정	다 함께
환영 및 광고	인도자	인도자
파 송 의 노 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축 도	임춘배 목사	정용준 목사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주일 오후	오후 3:30	사회: 임춘배 목사
------------------	---------	------------

찬 양	Joy And 찬양팀
기 도	김혜선 권사
성 경 봉 독	이사야 29장 1~16절
설 교	입술이 아니라 마음으로 공경하라 (임춘배 목사)
찬 양	315장 (통일찬송가 512)
축 도	임춘배 목사

수요 예배	오후 7:3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	---------	--------------

악인들에게 잠잠하지 마음소서 (시편 109편 1~31절)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예 배 안 내**
 - 주일 11시 예배는 영상으로 제공합니다.
 - 교회헌금계좌: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
 - 오늘 점심 봉사는 드보라회입니다.
 - 주차 안내
 - 중앙대 정문 주차장 이용.
(네 시간 주차: 2천원권 / 네 시간 이상 주차: 5천원권).
* 주차권은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흑석종합사회복지관 무료 주차 가능.
- 추 석 예 배 안 내**
 - 다음 주일(15일)은 추석 연휴로 1부, 2부 예배만 있습니다.
 - 다음 주일(15일) 점심 식사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16일(월)~18일(수) 새벽예배와 수요일예배는 없습니다.
 -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가 본당 입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기독교한국침례회 총 회**

제 114차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에 담임목사님이 참석합니다.
* 기간: 9월 9일(월)~11일(수) / 장소: 강원도 정선
- 헌 신 예 배**

22일 주일 오후 예배는 청년부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 떡 제 공**

김은정 집사님이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한주간의 기도제목	우리의 삶이 예배임을 기억하며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쁨과 자원함으로 동참하도록.
----------------------	--

찬송 : '햇빛을 받는 곳마다' 138장(통52)

본문 : 마가복음 12장 13~17절

말씀 :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자신들을 향한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바리새인과 헤롯당이 한통속이 돼 예수께 나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그렇지 않은지' 질문합니다.(14절)

사실 바리새인과 헤롯당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경건한 유대인들로 로마의 반대편에 선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 헤롯당은 헤롯의 하수인으로서 로마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바리새인과 헤롯당, 이 둘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려야 한다는 같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불편한 관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가 된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건 까다로운 일이었습니다. 만약 가이사에게 바쳐야 한다고 답하면 바리새인들이 분노할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가이사에게 바치면 안 된다고 말할 경우 헤롯당 사람들이 분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17절)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유한한 세상을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며 살아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이사는 유한한 인간일 뿐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유한한 이 세상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세금을 누구에게 바치는 정도의 문제에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합니다.

둘째는 가치관이 역전되고 질서가 바뀐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영원한 것과 헛된 것을 잘 분별해서 가이사의 것을 하나님에게, 또 하나님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는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쪽에만 최선을 다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세상의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균형 잡힌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만 있을 뿐 내일은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허락된 하루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목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 (벧전 5:1~6)

서 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장차 받을 영광에 즐겁게 참여해야 합니다.

- 본 론
1.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동참
 - (1) 불시험을 이성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즐거워하라 (4:12, 13a절)
 - (2) 즐거워하는 이유: ①그의 영광에 날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 (13절) ②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14절b)
 - (3)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기꺼이 봉사하라(5:1,2,4절)
 - (4) 젊은 자들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5절)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6절)

2. 교훈

- (1) 불시험 가운데 즐거워하고 있는가?
- (2)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있는가?
- (3) 자원하는 마음으로 겸손으로 봉사하고 있는가?

결 론 불시험 가운데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즐겁게 봉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섬김이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2부 예배 기도	편도선 장로	이태수 장로
2부 예배 헌금	김재준 집사	방성자 집사
오후 예배 기도	김혜선 권사	
주 방 봉 사	드보라	

매일 Q.T.	백성을 배려하며 물질로 헌신하는 지도자	날짜 : 9월 9일 월요일
찬양	찬송가 218장 네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본문	느헤미야 5:14~19	
말씀요약	이전 총독들은 유다 백성을 압제해 양식과 돈을 빼앗았으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느헤미야는 총독 재임 12년간 녹을 받지 않았습니다. 종지들과 함께 힘을 다해 일했고, 일부 백성과 민장들과 이방인들을 자기 상에 대접했음에도, 그는 부역이 중한 백성을 생각해 녹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묵상질문 1	보수를 받지 않은 느헤미야 5:14~16 느헤미야는 왜 총독의 보수를 받지 않았나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가요?	
묵상질문 2	자기 재산으로 헌신한 느헤미야 5:17~19 매일 많은 사람의 식사를 자비로 제공한 느헤미야의 헌신은 어떠했나요? 재물을 선하게 사용하기 위해 내가 실천할 일은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느헤미야 5장 14~15절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생각해, 느헤미야는 총독에게 지급되는 양식을 포기합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은 성도는 진리와 윤리의 관점에서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의 관점에서는 탁월한 지식과 확신을 가져야 하고, 윤리의 관점에서는 정직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공동체를 위해 불편함을 감수하려는 마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 마음이 이웃 사랑의 계명을 실현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주님! 제 마음과 우선순위를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두길 원합니다. 제 권리를 누리는데 마음을 쏟기보다, 하나님이 맡겨 주신 사람들과 일을 위해 더 마음을 쏟게 하소서. 제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 즐겁게 사용하며, 매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행동하게 하소서.	

개인 성경 공부 “성벽 재건을 주관하신 분”	
찬양과 기도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새 585)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묵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평양에 교회가 있던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믿음이 좋은 여성도가 진남포로 이사했습니다. 그녀는 이사한 후에도 진남포와 평양을 오가며 주일을 지켰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집을 떠나 평양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에 진남포로 돌아왔습니다. 한 번은 달구지에 두 아들을 태우고 가는데 형제끼리 막대기로 장난을 치다가 옆에 지나가던 말의 눈을 찔렀습니다. 놀란 말이 높이 뛰었고, 그 위에 타고 있던 사람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떨어져 중상을 입었습니다. 형제는 이 일로 재판장을 받게 되었고, 재판장은 누가 이 일을 저질렀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형제는 동시에 자신이 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난감해진 재판장이 어머니를 불러서 의견을 물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여성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벌을 받아야 한다면 작은아들에게 내려 주십시오. 저는 이 가정으로 개가(改嫁)했습니다. 큰아이는 전처의 소생이고 작은아이는 제가 낳은 아들입니다.” 그 말에 감동한 재판장은 “당신은 무엇 하는 사람이요?”라고 물었고, 여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그러요?”라는 재판장의 물음에 그녀는 “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 그렇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재판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돈을 줄 테니 진남포 땅에 교회를 세워 당신 같은 사람이 많아지게 해 주시오.” 죄로 가득한 시대에도 거룩하게 사는 성도와 거룩함을 추구하는 교회는 있습니다.
말씀나누기	느헤미야 6:15~7:4
묵상포인트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 성취됩니다. 대적들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막기 위해 온갖 방해 공작을 펼쳤지만, 그럼에도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됩니다. 당시 예루살렘 거주민들은 성벽 공사와 성을 방비하는 일을 병행해야 했습니다. 고된 여건에서도 짧은 기간에 성벽을 재건한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주도하시고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뜻하신 바를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불완전한 지혜와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지키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관찰과묵상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대적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6:16)
적용하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면 사탄과 악한 세력의 공격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함께 기도하기	저희와 다음 세대가 선택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방해하는 대적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굴복하고 낙담해 떠나가게 하소서.
기도	

매일 Q.T.		온전한 예배를 위한 아낌없는 헌신	날짜 : 9월 13일 금요일
찬양	찬송가 215장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본문	느헤미야 7:61~73		
말씀요약	귀환자 중에는 그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했는지 알 수 없는 이들도 있습니다. 제사장 계보에서 이름을 찾지 못한 자들은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총독과 족장들과 백성은 금과 은과 제사장 의복 등을 곳간에 드립니다. 온 백성이 다 자신들의 성읍에 거주합니다.		
목상질문 1	출신을 알 수 없는 사람들 7:61~66 귀환자 중에서 제사장 계보를 엄격하게 파악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내가 기준을 낮추면 안 되는 일은 무엇인가요?		
목상질문 2	귀환자들이 가져온 재물 7:67~73 귀환자들이 많은 재물을 가져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재물을 어떤 일에 사용해야 보람될까요?		
한절묵상	느헤미야 7장 73절 백성을 안전하게 지켜 줄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고, 하나님 백성은 그들이 받은 기업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 귀환한 백성이 자기 성읍에 거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언약 갱신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뜻 안에서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삽니다. 성도가 머무는 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할 믿음의 터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주님, 계보를 알 수 없는 사람 같았던 저를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도록 저를 부르셨으니, 주신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에 감사하며 순종을 화답하게 하소서.		

매일 Q.T.		거짓 계약에 넘어가지 않는 믿음	날짜 : 9월 10일 화요일
찬양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본문	느헤미야 6:1~14		
말씀요약	성벽을 건축했다는 소식에 산발랏을 비롯한 원수들이 느헤미야를 해하려 네 번이나 만나자고 하나, 그는 응하지 않습니다. 산발랏은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 한다고 모함하고, 스마야는 뇌물을 받고 느헤미야에게 거짓 예언을 하며 성전 외소에 숨으라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의 음모를 분별합니다.		
목상질문 1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시도들 6:1~9 대적들이 느헤미야에게 밖에서 만나자고 요청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상대방이 옳지 못한 요청을 거둬낼 때 나는 어떻게 거절하나요?		
목상질문 2	거짓 예언을 통한 협박 6:10~14 스마야가 전한 거짓 예언에는 어떤 함정이 있었나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일과 나의 안위를 지키는 일 중에 나는 어느 편을 택하나요?		
한절묵상	느헤미야 6장 2~3절 성벽 재건을 방해하던 산발랏은 급기야 느헤미야를 암살할 계획까지 세웁니다. 사탄은 하나님 백성의 삶을 무너뜨리려는 일을 계속 시도합니다. 사탄에게 중도 포기는 없습니다. 이에 성도는 거짓 아비인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해 영적 통찰력을 가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철저히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선불리 행동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오해받고 위협과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굳건히 붙드는 믿음을 주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것들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 분별력과 용기를 주소서.		

매일 Q.T.		조속한 성벽 완공, 철저한 수비 계획	날짜 : 9월 11일 수요일
찬양	찬송가 447장 이 세상 끝 날까지		
본문	느헤미야 6:15~7:4		
말씀요약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끝나자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은 하나님을 이루신 역사로 인해 두려워하며 낙담합니다. 유다의 귀족들과 동맹한 도비아는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려고 편지를 보냅니다. 성벽이 건축되자 느헤미야는 하나니와 하나냐를 지도자로 삼고 성의 파수를 명합니다.		
목상질문 1	성벽 완공과 도비아의 술수 6:15~19 도비아와 동맹한 유다 사람들은 느헤미야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지도자와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나의 태도는 무엇인가요?		
목상질문 2	관리자로 세운 사람들 7:1~4 느헤미야는 어떤 기준으로 예루살렘 성을 다스리는 관리를 세웠나요? 공동체의 리더를 세울 때 어떤 품성을 지닌 사람을 세워야 할까요?		
한절묵상	느헤미야 6장 15~16절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자, 이 소식을 들은 대적들이 크게 낙담합니다. 성벽 재건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 하나님임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불신자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은 낙담의 이유지만, 성도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은 소망의 이유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눈으로 주어진 상황을 해석하는 것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낙담할 이유만 보이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소망을 가질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주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제 삶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보는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날마다 충성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지키고 파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매일 Q.T.		신앙 공동체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	날짜 : 9월 12일 목요일
찬양	찬송가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본문	느헤미야 7:5~60		
말씀요약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계보대로 등록하게 합니다. 처음 돌아온 자들의 계보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다 놓임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온 백성, 제사장, 느디님 사람들, 솔로몬 신하 자손 등의 명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상질문 1	귀환한 지도자와 일반 백성 7:5~38 성벽 완공 후 귀환자 명단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문의 계보가 곧 신앙의 계보가 되도록 내가 힘쓸 일은 무엇인가요?		
목상질문 2	귀환한 성전 봉사자들 7:39~60 성전 봉사자들의 명단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배 회복을 우선순위에 두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느헤미야 3장 5절 성벽 재건을 마친 후에는 방비책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 지혜로 성벽 방비 대책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열심과 열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공동체를 이끌어야 할 사명을 가진 지도자에게 하나님 지혜는 절대적입니다. 몇 초 후도 예측할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주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약속대로 유다에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보며,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돌봄을 깨닫습니다.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저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지요. 제게 온전한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